

Peach, 아시아 최초 에어버스 A321LR 도입 동북아시아 중거리 LCC 역사를 쓰는 첫 걸음

- **A321LR 2대 구매 계약 체결**
-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항속거리 실현**
- **2020년도 내에 수령 예정**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CEO 이노우에 신이치, 본사: 오사카부)는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한 판버러 국제에어쇼에서 에어버스(민간항공기부문 사장: 기욤 퍼리(Guillaume Faury), 본사: 프랑스 툴루즈)로부터 2020년도에 진출하는 중거리 LCC 사업용의 기재로 A321LR 2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A321LR 도입은 아시아 항공사로서 최초이다.

Peach는 에어버스와 2016년 11월에 체결한 A320neo 10대 구매계약을 8대로 변경하고, A321LR 기종을 2대 도입하기로 했다. A321LR은 단통형 중 베스트셀러인 A320 패밀리의 최신파생형으로, 같은 패밀리 A321neo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모델이다. 단통형으로 세계 최대 항속거리 7400km를 실현하는 모델이다. 이는 일본에서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A321LR 2대는 2020년도 내에 수령 예정이다. Peach는 향후 바닐라 에어를 흡수하고 2020년 이후에 A321LR을 포함하여 50대 이상의 기재를 보유하며, 노선 수도 50개 이상으로 사업 규모를 더욱더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A321LR의 도입에 관해 대표이사 이노우에 신이치는 “Peach는 일본의 첫 LCC로서, 일본 단거리 LCC 사업을 성립에 도전하며, 5년 연속으로 증수 흑자를 달성하는 등, 일본 단거리 LCC 역사를 썼다.”라며, 중거리 진출에 관해 “Peach의 다음 도전은 중거리 LCC 사업 진출이다. 2020년도부터 동북아시아 중거리 LCC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2020년도의 A321LR 도입은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며, A321LR의 도입과 중거리 LCC사업 진출에 힘입어 아시아 리딩 LCC를 향한 성장 속도는 한층 더 배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입 예정인 중거리용 기체 에어버스 A321LR



판버러 국제에어쇼에서 구입 계약의 조인식을 가지는 모습

【A321LR 개요】

계약내용 : 2 대
납입시기 : 2020 년도 10 월~12 월에 1 호기 수령 예정
(이후, 2020 년도 내에 2 호기 수령 예정)
엔진 : 미정
좌석 수 : 미정
항속거리 : 최대 7,400 km(4,000 해리)*※1

【A320neo 개요】

계약내용 : 8 대
납입시기 : 2020 년도 4~6 월에 1 호기 수령 예정
(이후, 약 2 년 간 2~8 호기 수령 예정)
엔진 : 미정
좌석 수 : 188 석(예정)
항속거리 : 최대 6,500 km(3,500 해리)※1

※연료 탱크 1 개의 사양에 따라 다름

Peach 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 는, 2012 년 3 월에 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한 일본 최대 LCC 이다. 간사이공항에 이어, 2014 년 7 월 나하공항, 2017 년 9 월 센다이공항을 거점공항화하며, 현재 20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5 개 노선, 국제선 15 개 노선을 취항 중이다. 1 일 기준 최대 약 100 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했다. 2018 년 8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 – 구시로 노선을 취항하는 한편, 2018 년도 내에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이다.